

# 기념비 건축, 우리의 숙제

글 · 구본준 bonbon@hani.co.kr

우리 전통 건축, 아니 동양 건축과 서양 건축 사이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건축으로 기념하는 문화다. 국가적 경사나 큰 사건을 기리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만드는 전통을 보면 동양과 서양은 정말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독일의 브란덴부르크문



서양에서 특히 발달한 건축 문화가 바로 이런 기념하는 상징물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에는 없고 서양에만 있는 장르가 개선문이다.

개선문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파리의 개선문을 떠올린다. ‘에투알 개선문’으로 불리는 파리 개선문은 나

폴레옹이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해 1836년 30년 만에 완공된 기념문이다. 이 문은 단순한 기념조형물을 넘어 파리라든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근대 파리는 개선문을 짓고 이 문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길을 내어 도시계획을 했다. 단순한 기념건축물을 넘어 프랑스 전체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의 개선문은 유럽의 수많은 개선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유럽의

주요 도시에선 거대한 기념문이나 개선문이 수도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문이다. 1788년 지은 브란덴부르크문은 언제나 독일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브란덴부르크문이나 파리 개선문 못잖게 개선문이 도시의 상징이 된 또 다른 곳으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있다. 모스크바 개선문은 러시아인들이 자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전 중 하나로 꼽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려 지었다. 이밖에도 벨기에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루마니아의 부쿠레

슈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등에도 그 크기는 조금씩 다르나 도시 중심부에서 위용을 뽐내는 개선문들을 만나볼 수 있다.

### 로마제국에서 시작된 유럽의 개선문 문화

이 개선문 문화는 유럽에서 2000년이 훨씬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선문이 기념 건축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유럽 문명의 원형이랄 수 있는 로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





스페인의 마드리드문



모스크바 개선문

마 시대였다. 늘 전쟁을 벌여 정복사업을 벌였던 로마 제국은 승리를 거둔 군대의 개선 행렬로 대중들에게 제국의 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충성심을 북돋는 국가적 이벤트로 활용했다. 이런 개선 행진을 위해 처음 승전 기념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개선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승리한 군대가 거대한 개선문을 통과해 도시로 돌아오는 로마의 전통은 이후 제국 안 곳곳에 개선문을 남겼다. 여기에 도시 전체를 대표하는 입구가 되는 도시문을 만드는 전통도 섞여 기념문, 개선문 문화는 유럽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된다. 파리 개선문처럼 아치가 하나인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과 아치가 3개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2000년 세월을 버티며 남아있는 로마 제국 개선문의 원형들로, 이후 여러 개선문들의 모델이 된다.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뒤 전쟁을 기념하는

건물보다는 종교 건물을 주로 지으면서 유럽에서 개선문 건축은 한동안 주춤했다. 그러다가 다시 개선문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은 근대에 접어들면서다. 유럽을 분할 지배하던 제국들이 쪼개지면서 민족국가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포장하고 국민들을 새로운 민족국가의 기치 아래 모이도록 하는 상징물로 새로운 개선문들을 경쟁적으로 지었다. 파리 개선문과 브란덴부르크문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었다. 특히 파리 개선문이 모델이 되면서 각 나라로 퍼진 개선문 붐은 새로운 나라들이 여럿 탄생한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유별나게 개선문에 집착했던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같은 이상한 황제도 있었다. 니콜라이2세는 자신이 방문한 러시아의 도시들마다 꼭 개선문을 짓게 했다. 그러나 개선문을 지을 국가적 업적은 없이 개선문만 지었던 이 황제를 마지막으로 결국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는 끝나고 말았고, 이후 로마노프 왕조를 증

오했던 이들은 니콜라이 2세의 개선문들을 집중적으로 파괴했을 만큼 개선문은 상징적인 구조물이었다.

## 동양에는 없었던 기념 건축 문화

그러면 동양에선 어떤 기념 건축 문화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양권에선 이런 개선문이나 거대하고 특별한 기념 조형물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념비적인'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이나 한국 등에선 비석 정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인물이나 업적을 기리는 방식이었다. 중국과 한국에선 도시를 상징하는 거대한 문을 많이 지었지만 유럽처럼 승전이나 황제의 위업을 기념하는 용도로서의 문은 아니었다. 간혹 높은 탑들을 지었어도 모두 종교 시설의 일부였을 뿐이다. 황제나 왕들이 주도했던 대형 건축사업들은 주로 궁궐이나 사원들이었고 기념탑, 기념문 같은 것들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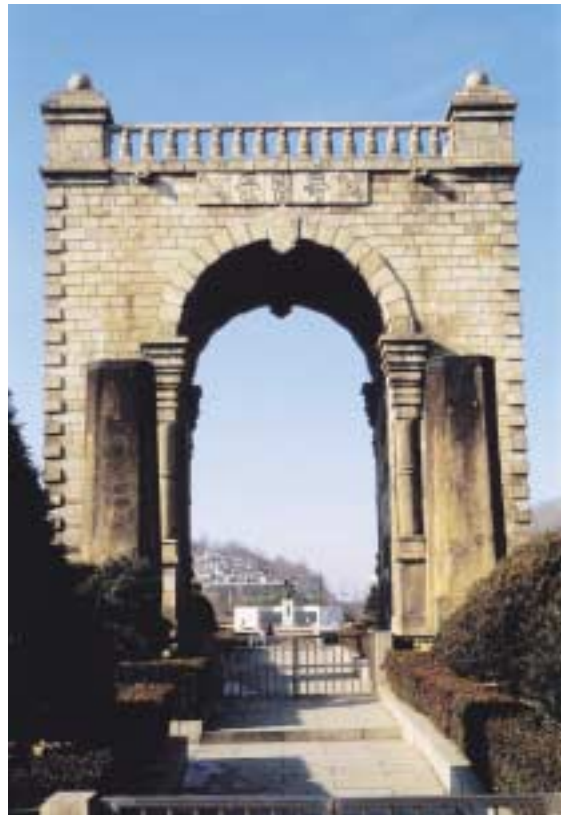
동양권에는 무언가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단언하긴 어렵지만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서양 문화는 기본적으로 규범화, 형식화를 좋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유럽 문화가 자기 정체성을 갖춘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에서 정착된 오래된 흐름이다. 개선문은 그런 형식화 문화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반면 동양은 인위적인 형식화를 선호하지 않는 문화였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황제와 나라의 업적을 기념물을 만들어 기

리는 방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절대권력자들은 오히려 무덤을 크게 짓는 것에 몰두했던 편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가 섞이고 모든 분야에서 서양 스타일이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면서 서양의 건축문화도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서양 건축은 널리 퍼졌지만 개선문처럼 사회문화적인 취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념 건축물은 아직 널리 확산된 편은 아니다. 여전히 아시아권에서는 개선문 문화는 익숙하지 않은 유럽만

독립문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의 전통으로 여겨진다. 물론 식민지 공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유럽과 달리 지배를 당한 편이었던 아시아 나라들에게 승전을 기념할 역사적 전쟁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이유일 것이다.

### 한국에 도입된 개선문 문화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념문은커녕 기념조형물 문화가 없었음에도 이런 개선문식 기념 조형물 문화를 자

발적으로 도입했던 나라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 왕이나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지은 독립문이 우리나라가 시도했던 변형 개선문이었다. 독립문은 개선문은 아니었지만 곧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서양 문명의 상징으로 시대적 표상이 된 기념 건축물이다.

그러나 독립문 이후로는 국내에서 기념비 기능을 하는 문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에 다시 유럽식 개선문류의 대형 문을 지었던 것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이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기

념탑, 기념비 등을 선호했던 한국에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든 거대 기념 건축물을 문 형식으로 시도한 사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이 거대한 문은 그 어떤 국가적 기념물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정권의 이미지를 지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최고의 건축가로 꼽혔던 김중업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김중업은 문 옆으로 단청 지붕을 상징하는 긴 날개가 뻗어있는 디자인으로 설계안을 올렸다. 그러나 위원회가 반대했다. 김중업이 원래 생각한 문의 높이는 24미터였는데, 너무 작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덩치로 보면 국보 1호인 남대문의 세 배나 되는 규모였지만 국가적 상징으로는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중업은 다시 91미터 높이로 덩치를 대폭 키워 두 번째 설계안을 내놨다. 파리 개선문의 5배나 되는 규모였다. 그랬더니 이번엔 오히려 너무 크다고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그래서 세 번 만에 완성된 것이 지금의 평화의 문이다. 높이 32미터, 날개폭 45미터짜리로 그래

도 한국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문이 탄생했다.

## 규모에 대한 집착, 과도하게 부여된 기념의 의미

국가적 상징물로 서양식 개선문을 시도한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1982년 김일성 칠순 생일에 맞춰 우리나라 전통 석탑 디자인으로 지은 평양개선문은 남한과 북한 정권의 공통점이 하필이면 세계 최대, 동양 최대 같은 무의미한 규모에만 집착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평양 개선문은 높이가 49미터인 파리 개선문보다 훨씬 더 커서 60미터 높이

평양 개선문



로 지어졌다.

북한은 세계에서 이런 국가 상징 건축물에 가장 집착하는 나라답게 평양 개선문에 이어 평양 통일거리에는 1999년 '3대현장탑'을 세웠다. 한복 입은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는 모습으로 만든 이 기념물은 탑이면서 문이다. 3대 현장을 상징하기 위해 높이를 30미터로 했다.

이 북한 3대현장탑 기념문과 비슷한 아시아의 다른 현대판 개선문으로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승리의 손'이 있다. 3대현장탑처럼 전형적인 사실주의와 영웅주의가 버무려진 전형적인 기념문 건축물이다.

현대에 한국과 북한, 이라크에 들어선 이들 기념문에는 나라는 달라도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규모와 형태에 대한 집착이다. 기념 건축물을 만들지 않았던 나라에서 오히려 더 과도하게 기념의 의미를 부여한 결과다. 독재정권이 남긴 가장 독재적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생긴 공통점이다. 자국의 명예를 높이겠다며 지었지만 평화의 문이 그나마 조금 나올 뿐 모두 외국의 시각으로 보기엔 비웃음을 사기 딱 좋은 모양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학적 평가를 떠나 시민들이 이 문들을 친숙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념하는 건축물이 존재

이라크 승리의 손



하지 않았던 나라들이어서 시민들이 이런 거대 기념물들을 도시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즐기지 않는 것이다. 공공 조형물이나 기념물들이 시민들과의 소통, 새로운 콘셉트를 추구하기 시작한 시기에 독재자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한 문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노릇이다.

## 기념건축물, 꼭 필요한 것일까?

현대에 들어서 서양의 개선문을 받아들여 그동안 없었던 기념건축물 문화를 시도한 아시아의 문들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건축적으로는 20세기 아시아 독재자들의 규모 집착과 취향을 보여주는 특별한 기념물들로 미학적으로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80~90년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시대적 단계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처럼 등장한 필연적인 건물들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떻든 이미 만들어져 각 나라의 주요 기념물이 된 저 문들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예전 우리나라에는 기념건축 문화가 없었어도 이제는 기념건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그런 변화에 걸맞은 기념건축 양식을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도시들은 수많은 기념 오브제들이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베껴대며 엇비슷하고 촌스러운 것들을 넘치도록 쏟아내고 있다.

개선문 문화가 없던 한국에 서양식 평화의 문이 지어

진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울리지 않는 기념문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맞는 기념문 양식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않는 기념문 대신 탑 형식의 기념물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전에 과연 꼭 건축물로 기념을 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축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민선으로 바뀐 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주요 공공건축물들을 보면 촌스러운 기념건축물들이 ○○센터나 ○○회관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자체장이 스스로를 건물을 지어 기념하겠다고 여기는 한 기념 건축의 발전은커녕 공공건축 전체의 발전은 꿈꾸기도 어렵다. 시청 건물을 100층 마천루로 지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웃기조차 힘든 발상이 21세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북한 개선문 같은 건물이 시대착오적으로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공공건축물, 기념건축물은 국민들의 건축 마인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건축 분야다. 외국 개선문 문화를 도입하며 겪은 시행착오가 다른 공공건축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공공건축물 설계를 뽑을 때 더욱 치열하게 경쟁을 붙이고 조금이라도 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이 깨우치는 수밖에 없다. *박민*